

광주 아파트 '3순위 청약' 몰린다

전망 좋은 로얄층 중대형 등 '쏠림 현상'

분양권 전매 가능... 미분양 해소 등 활기

올 들어 광주 분양시장이 일부 인 기단지를 중심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 면서 일명 '로얄층'과 '조망권' 등의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중대형주 택에 3순위 청약자가 대거 몰리고 있 다.

특히 광주는 최근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어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한 3순위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2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광 주에서 분양권 아파트 3곳 가운데 2 곳의 중대형물량이 1, 2순위에서 사

실상 청약률 '0(제로)'를 기록한 뒤 3 순위에만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

이처럼 3순위에 청약자가 쏠린 것 은 1, 2순위와는 달리 청약통장 없이 도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층'이나 '향' 을 분양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부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로얄층'이나 '조망권'이 좋은 집은 같 은 단지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또 광주의 경우 올 들어 부동산 규 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남구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서

서히 살아나고 있는 것도 청약시장 '쏠림'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광주는 지난해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에서 벗어난 데 이어 올 들어선 전매제한 폐지가 가시화되 면서 일부 인기 사업지를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섰다.

지난 2월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분 양한 D아파트 가운데 중대형인 179 m(56가구)는 1, 2순위 청약자가 7명 에 그쳤다. 반면 3순위에서 무려 488 명이 몰릴 만큼 '쏠림 현상'이 뚜렷했 다.

북구 신용동의 G아파트도 중대형 인 193m(60가구)가 1, 2순위에선 청 약률 '0'를 기록했지만 3순위에 71명 이 몰려 회사 관계자들이 가슴을 쓸 어내려야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서구 삼촌 동에 공급된 H아파트도 중대형 224

m(14가구)의 1, 2순위 청약실적이 각각 9명에 그쳤다. 하지만 3순위에선 49명이 몰려 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양상을 빚기도 했 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같은 '쏠림 현 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3순위 청약자 모두가 실제 계약 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다 '로얄층' 등 의 프리미엄을 노린 가수가 많을 경우 자칫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팀장은 "광주의 청약 '쏠림 현상'은 시장침체로 인한 분양시장 양극화와 규제 완화로 인한 시장 회복세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 어진다"며 "실수요자들은 투기적 가 수요층이 선점한 매물에 피해를 입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지방 골프장 이용稅 확 줄인다

재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소비세 등 2만1,120원 부담금 없애

정부가 지방의 회원제골프장 이 용료(그린피)에 붙는 세금과 국민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골프장에 대 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을 내 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의 선진 화방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수도권 이외의 지 역의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에 부 과되는 개별소비세(1만2천원)와 교육세(3천600원), 농어촌특별세 (3천600원), 부가가치세(1천920 원), 국민체육진흥기금(3천원)등 모두 2만1천120원의 부담금을 없 애릴 방침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

난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비 스수지 적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 해 (관광산업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골프장 등에 대한 소비세 인하의 경우 수 도권은 정치적으로 복잡해서 논 의도 안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 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이용료에 대한 세금 등을 폐지하 는 대상 골프장을 수도권 이외의 지 역으로 제한할 것인지 여부에 대 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또 현행 10%인 골프 장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크 게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

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취·등록세 인하 역시 지방자치 단체의 세수가 줄어드는 민감한 문제로, 아직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가 종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방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재정부는 서비스업 사업 용 토지에 대한 중부세 완화 특례 대상에 회원제 골프장도 포함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비스업용 토 지에 대한 중부세는 200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만 0.8%의 단일 세율 을 지난해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종전 까지는 40억원이 넘는 경우 중부 세가 부과됐다.

연합뉴스

전남도, 중국서 1억달러 투자협약

박준영 지사 등 투자유치단 첫 성과

전남도가 박준영 지사를 단장으로 을 첫 외자유치 활동에 나선 중국에 서 1억달러의 투자협약을 맺는 성과 를 거뒀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외자유치단 은 이날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 (威海)시 왕웨이 이엔 당서기와 손수 타오 웨이하이 시장을 잇따라 면담한 데 이어 한중국제산단에 투자를 희망 하는 5개 기업과 총 1억달러의 투자 합의서(MOA)를 체결했다.

박 지사는 이날 웨이하이 시장 등 과의 연례 면담에서 두안기업도시 내

한중국제산단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산동성과 웨이하이시 기업들이 투자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약속 을 받았다.

이와 함께 산동성 기업들은 한중국 제산단 이외에도 전남도의 비교우위 자원인 2천여개의 섬, 해변, 갯벌 등 을 이용한 해양관광 부문의 투자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으로 알려졌다.

주요 투자협약 기업으로 산동성 웨 이하이시 영창방직산업단지유한공사 가 한중국제산단단지에 66만㎡의 웨

이하이시 해외경제무역단지를 조성 키로 하고 3천만달러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 산동호남가집단유한공 사는 6만㎡ 부지에 식품가공공장 및 물류·냉동창고 설립을 위해 2천만달 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석도신항항 무고빈유한공사는 물류단지 조성 및 수산물 가공공장 설립을 위해 1천500 만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산동성 웨이하이시의 한 국상품 쇼핑몰에 설치할 전남상품관 설치 조인서도 가져 전남의 농수산물 및 공예품이 전시될 수 있는 길이 열 렸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기아차 광양항 이용 자제해달라"

광양컨부두공단, 목포신항 관련 항만운영 4사에 협조 공문

광양컨테이너부두공단이 23일 기 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수출 차량의 광양항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목포신항 하역중단사 태에 따른 기아차 수출의 또다른 차 질이 예상되고 있다.

광양컨부두공단 관계자는 23일 "한국 허치슨과 대한통운, KIT, 동부 터미널 등 4개 항만운영사에 '기아차 가 광양항을 이용할 경우 지역간(목

포와 광양)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만 큼 장기적으로 기아차가 광양항 이용 을 자제할 수 있도록 운영사가 협조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항만 운영 회사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항만운영사에 수출 물량에 대한 선적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항만운영사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며 "기아 수출 차량에 대한 목포신항의 하역중단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는 기아 수출 차량이 광양항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 수출 차량에 대한 목포 신항의 하역중단 사태는 목포신항만 쉼이 수직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 15일 목포신항에 반입된 기아 수출 차량의 하역을 거부하면서 야기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남 농축산물 '서울 직거래' 인기

쌀·김치 등 26일까지 과천 청사서 할인 판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 수)는 23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 청사에서 열린 '새봄 맞이 전국 농 식품직거래 장터(사진)'에서 전남 의 우수 농축산물을 판매해 큰 호 응을 얻었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최근 불가 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 민들의 부담을 덜고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 으며, 오는 26일까지 사흘간 열린 다.

전남농협은 이번 직거래 장터에 서 지난해 소비자단체가 선정한 '한눈에 반한 쌀' 등 5대 브랜드 쌀 과 회원농협의 'e-맑은 김치' 등 30 여종의 우수 농특산물을 10~30% 저렴하게 판매한다.

특히 전남 축산물의 판매 확대 및 홍보를 위해 '지리산 순한 한우 '와 '해두루 포크' 등 광역 브랜드육 에 대한 판매전용 특장차도 마련했 다. 또 전남의 대표 브랜드 쌀로 만 든 샘플쌀을 사은품으로 증정함으 로써 전남쌀의 맛을 널리 알리는 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韓牛 너 마저도

美쇠고기 수입 여파

고기값 16% 떨어져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개 방 소식에 최근 소 출하가 늘 면서 한우 쇠고기 값도 약세 를 면치 못하고 있다.

2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재 전체 한우 쇠고기 도매가격은 1kg 당 평균 1만1천929원으로, 지난달 평균인 1만4천258원 과 비교해 16.3% 떨어졌다. 바로 전남인 21일의 1만2천 286원보다도 2.9% 낮은 수 준이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에 이 어 캐나다산 쇠고기도 조만 간 다시 들어올 전망이다. 농 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3 일 "당초 캐나다가 미국과 같은 시기에 쇠고기 위생조 건 협상을 하자고 요청했었다"며 "현재 개최 일정을 조 율하고 있고 조만간 날짜와 장소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 혔다. 하지만 협상 결과는 미 국과 마찬가지로 '전면 개방 수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 인다.

최경호기자 choice@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A/S까지 최고의 품질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유일정공(주)

주요 사업: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환경, 조경, 인테리어, 설계, 시공, 유지보수, A/S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동산동 1-1

전화: 061-261-1111

팩스: 061-261-1112

이메일: yulim@yulim.co.kr

뉴서울나이트

대인형

실운도 오늘, 내일 4월24일 OPEN

박상철 5월 1일9일

예약문의 226-9333-4